

이기는 습관

Winning Habit



글 | 閔胤植
(Min, Yun Sik)

도로및공항기술사,
대림산업(주) 부장.
E-mail : bb4856@naver.com

1. 두 번의 정독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을 보면 언뜻 두 가지 의미가 떠오른다. 하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또 하나는, 이기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좀 더 제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습관’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는 ‘습관약자연(習慣若自然)’ 즉 ‘타고난 천성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고, 그것은 천성 또는 학습에 의해 만들어 진다. 지금 자신의 습관에 이 책의 저자가 말한 ‘이기는 습관’을 더한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책을 두 번 읽은 것이다.

2. 땀냄새 나는 경험을 간접체험하다.

이 책의 저자, 전옥표씨는 삼성전자에서 십수년동안 마케팅 활동을 현장에서 해왔던 분이다. 믿음이 가는 화려한 경력은 물론 이 책 곳곳에 저자가 실제 체험한 사례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책을 쓰기 위한 비현실적인 사례 또는 널리 알려진 외국의 유명한 사례보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례라는 점에서 공감이 갔다. 혹이나 이 글을 보시는 기술사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기술자이니까, 남한테 물건 팔 일도 없고, 나의 전문성만 키워나가면 되겠지...’

필자도 처음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기술자로서 자기분야의 기술과 지식은 기본이고 여기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책에서는 22가지의 이기는 습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중 필자

의 생각에 우리 기술자들이 새겨 들을만한 것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다.

3. 고통이 따르는 창조적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 걸어라

‘혁신’(革新)이란 한자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최고가치 기준을 ‘매출목표 달성’에서 ‘고객만족도’로 확 바꾼 후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매출도 크게 향상 되었다. 그 때 느낀 경험으로 저자는 창조와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절차를 제시한다. ‘발견, 주시, 판단, 선택, 실행’이 그것이다.

4. 목표는 원대하게, 평가는 냉혹하게

‘5%성장은 불가능해도 30%성장은 가능하다.’ 사실 필자는 이 말을 신문에서도 본 적이 있다. 대한민국 셀러리맨의 신화적 인물인 전(前)LG전자 CEO 김쌍수씨(현재는 한국전력공사 CEO) 관련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CEO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원칙이다.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5%를 바꾸려는 목표보다는, 30%를 바꾸려는 목표를 세우면 그만큼 더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달성했는지 공정하게 측정하고 냉혹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5.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가 결국은 큰일을 이룬다.

저자는 22가지의 이기는 습관 중 ‘집요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한 세일즈맨은 117번을 방문해서 고객을 얻었고, 그런 집요함으로 최고의 판매왕이 되었다고 한다. 굳이 책에서 언급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두 번은 집요함의 위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6. 마무리 하면서...

저자가 말한 22가지의 이기는 습관은 사실 필자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나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이유는 망각하고 있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기술사 분들에게 한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22가지의 이기는 습관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체득하여 자신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3가지 정도는 체득하고 습관화 하려고 평상시에 노력하고 있다.

요즘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이기는 습관을 체득하고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프라인으로 듣는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도 매우 흥미로웠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 여러분에게도 이로운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술사 교육(CPD)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술사가 되시길 당부드린다.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13일)